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도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하나의 규칙도 아닙니다. 도덕은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성과보다는 개선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①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운명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 ② 변하지 않는 자연법에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와 관행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 ④ 삶의 현실과 무관하게 초월적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⑤ 지성적 탐구로 삶을 개선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함을 일러 도(道)의 중심축(樞)이라고 한다.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 무궁한 변화에 응대한다. 그러므로 옳게 여기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무궁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 ②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만물과 하나이므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다.
- ④ 도에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 ⑤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는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解脫)이라고 한다.

- ①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 선정, 지혜를 모두 없애야 한다.
- ② 중생의 삶이 고통은 아님을 분별적 인식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③ 오온(五蘊)이 무상함을 깨달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변치 않는 실체가 존재함을 관찰해야 한다.
- ⑤ 연기의 원리에 따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순임금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스린 분이다.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능(賢能)한 이들에게 국정을 맡겼을 뿐이다. 덕으로 다스림은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못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을: 임금이 무위(無爲)하면 만물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성인(聖人)은 고정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세상을 위해 마음을 비우기에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백성을 아이처럼 되게 한다.

- ① 갑: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 ② 갑: 백성이 악행을 부끄러워하도록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 ③ 을: 백성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을: 백성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 ⑤ 갑, 을: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5.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양이(洋夷)의 재앙이 오늘날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심합니다. 안으로는 사학(邪學)의 무리를 벌하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온 도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을: 동양인은 형이상에 밝아 도(道)가 뛰어나고, 서양인은 형이하에 밝아 기(器)가 최고이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세계를 평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병: 시(侍)는 세상 사람들이 안으로 한울님의 신령한 마음을 보존하고 밖으로 한울님의 기운과 하나 되어 변치 않는 것이요, 주(主)는 한울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나)

〈범례〉
 A: 을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며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ㄴ. B: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기며 후천 개벽을 지향해야 한다.
 ㄷ. C: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양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ㄹ. D: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을: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 ① 갑: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 ② 갑: 이해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③ 을: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을: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
- ⑤ 갑, 을: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한다.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어떤 정념의 충동에 맞서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정념일 뿐 이성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하고,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말고 그 어떤 다른 일도 맡을 수 없다.

을: 선의지는 자신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것이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 경험과 관찰의 방법은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갑: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다.
- ③ 을: 도덕 법칙은 필연적 명령이므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을: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비록 근기[根]가 낮은 중생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頓教]을 듣고 밖에서 닦는 것을 믿지 않으며, 오직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된다.

을: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따라 수양하여 차츰 공[功]이 이루어지면 오랜 동안을 거쳐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 ① 갑: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박에 깨우쳐야 한다.
- ② 갑: 참선을 통해 내 마음에 불성이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 ③ 을: 누구나 깨닫는 찰나에 습기와 번뇌는 일시에 제거된다.
- ④ 을: 마음의 작용[慧]을 마음의 본체[定]보다 항상 먼저 닦아야 한다.
- ⑤ 갑, 을: 중생의 구제가 아니라 개인의 수행에만 정진해야 한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치지(致知)와 역행(力行) 중 어느 한쪽에만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을 구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를,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

을: 누군가 효도와 공경을 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효도와 공경을 실천한 적이 있어야 한다. 단지 말만 한다고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지(知)와 행(行)은 본래 하나이다.

<보 기>

- ㄱ.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 ㄴ.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 속의 앎[知]이 확충된다.
- ㄷ. 격물과 치지 모두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법이다.
- ㄹ.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인간은 모두 선한 본성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들은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즐거운 삶은 덕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을: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덕한 삶이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C{C} A -- 예 --> B{B} B -- 예 --> G1[갑의 입장] C -- 예 --> G2[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보 기>

- ㄱ. A: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 ㄴ. B: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 ㄷ. C: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 ㄹ. C: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인간의 삶이 덕 있는 삶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고대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의 성(性)이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여 양보란 것이 없게 된다.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시기함이 있다. 이를 그대로 두면 폭력과 잔혹함이 생겨난다.
 을: 사람의 본성을 논하건대, 사람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은 뿌듯하게 기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은 위축되어 풀이 죽는다.

- ① 갑: 예(禮)는 내면의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외적 규범이다.
- ② 갑: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는 인(仁)과 의(義)가 있다.
- ③ 을: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인간의 타고난 사덕(四德)에 기초한다.
- ④ 을: 형구(形軀)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 어렵고 악하기 쉽다.
- ⑤ 갑, 을: 금욕적 수양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1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 인간이 정의 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인간 본성이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직 혼자 힘으로 절망을 제거하려 하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뿐이다. 자신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 ① 갑: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 ② 갑: 인간이 아닌 사물도 정해진 목적이 없이 먼저 실존한다.
- ③ 을: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 ④ 을: 실존적 상황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 ⑤ 갑, 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을 요청해야 한다.

13.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말을 타고 문을 나갈 때,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 마음이 지도하는 것과 같고, 사람이 말에게 행로를 믿고 말기는 것은 욕구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오직 기가 발하여 이가 탈 뿐이다.
 을: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는다. 사람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단과 칠정의 구분은 각각 사람과 말을 위주(主)로 말한 것과 같다.

- ① 도덕 감정은 일반 감정의 일부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어떤 감정도 이가 직접 발한 것일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도덕 실천은 경건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천지 만물의 성(性)은 이가 기에 들어와 형성됨을 간과한다.
- 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음을 간과한다.

14.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 ① 중용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 ②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품성적 덕이다.
- ③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춰야 할 품성적 덕이다.
- ④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 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계발된 품성적 덕이다.

1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 소급은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원동자, 즉 신은 존재해야 한다.
 을: 실체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신을 제외한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 ① 갑: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 가능하다.
- ② 갑: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는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
- ③ 을: 신은 세계의 필연적 원인으로 세계의 바깥에 있다.
- ④ 을: 신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 ⑤ 갑, 을: 신에 대한 지적 추론만으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며,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제공할 뿐이다.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하여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보 기>—
 가. 갑: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나.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가 소유한다.
 다. 을: 공산 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르. 갑, 을: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속고와 심의를 통해 각자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을: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시민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의 지배를 의미한다. 시민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지배할 대표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갖는 것에 머무른다.

- ① 갑: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가 아닌 다수결로 보장된다.
 ② 갑: 공정한 토론을 위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는 배제해야 한다.
 ③ 을: 유권자는 선거 이외에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④ 을: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권력 획득 경쟁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⑤ 갑, 을: 정치가와 일반 시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은 차이가 없다.

18.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을: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 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 ① 갑: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다.
 ② 갑: 인간이 쌓은 덕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③ 을: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④ 을: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은 같다.
 ⑤ 갑, 을: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p> <p>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둔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시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p> <p>병: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p>
(나)	<p>〈법 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 시〉 ①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F: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님을 간과한다.
 ② B: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간과한다.
 ④ D: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E: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애국심은 동료 시민을 향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다. 이는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애국심은 보편적 사랑이 아닌 특정 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
 을: 애국심이 동일한 과거와 문화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한다면, 상이한 소수집단을 배척하는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의 근거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

- ① 갑: 애국심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국민적 감정이다.
 ② 갑: 애국심은 법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열정이다.
 ③ 을: 애국심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 시민적 책무이다.
 ④ 을: 애국심은 민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⑤ 갑, 을: 애국심은 국가의 역사를 공유하는 연대감에서 비롯된 덕성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